

남북 정상회담 전후 북한 대내외 정책의 변화

고성준*

I. 정상회담과 북한 '변화' 논쟁

1. 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변화

- 0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「틀」 마련
- 0 질적 전환의 계기

2. 북한의 변화를 둘러싼 「남남대화」의 쟁점

가. 논쟁의 중심: 북한의 변화 여부

0 대북정책 옹호론

북한은 이미 상당히 변화했고, 여러 여건을 보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. 따라서 대북 정책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.

0 대북정책 비판론

「북한이 변화를 시작했고, 변화할 수밖에 없다」는 옹호론은 지나치게 안이하다. “북한은 안 변했고, 변하지 않을 것이다”라는 입장을 견지한다.

나. 논쟁의 근거: 북한 '변화' 판단 기준의 상이함

0 '변화인정론'의 근거: 전환기의 북한

첫째, 북한 경제 체제는 「市場化」를 시작했다.

둘째,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서서 '남조선 혁명' 전략으로부터 체제유지와 발전이라는 '생존전략'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.

0 변화 불가능론의 논리: 전술적인 변화

첫째, 그동안 보여준 북한 내부의 체제 변화를 개혁의 차원에서 평가할 수 없다.

둘째,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정상회담을 「연공연북(聯共聯北)」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.

II. 김정일 시대의 북한 대내정책 노선의 전개

가. 97년: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 이후

- 0 3대 제일주의 폐기
- 0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강조
- 0 나진-선봉의 명칭에서 「자유」 삭제

* 제주대 교수

- 0 대대적 당 검열과 고위간부들의 숙청
- 0 '고난의 행군' 종료선언

나. 98년

- 0 신년사설: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 견지
- 0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 지도
- 0 제2의 천리마 운동 시작(전력증산 운동-중공업정상화-감자농사혁명-토지정리사업)
- 0 광명성 1호 발사와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장
- 0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행정통제 강화
- 0 김정우를 비롯 대남경제 협력 관계자들 대거 숙청
- 0 헌법 개정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취임(10월)
- 0 대외경제 협력위 폐지,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중앙통제강화
- 0 아태 평화위원회로의 남측과의 '창구단일화'
- 0 금강산 관광 시작(10월)
- 0 공민증 교체
- 0 북한 언론 "개혁-개방 절대 불수용" 강조

다. 99년

- 0 신년사설: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
- 0 '선군정치'강조하나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증가
- 0 농민시장과 장사활동에 대한 견제조치와 노동자 복귀 명령
- 0 인민 경제계획법 제정(4월)
- 0 곡물, 담배, 채소류 판매허용(8월)
- 0 제2의 천리마 진군 선구자대회(11월)

라. 2000년

- 0 신년사설: 당창건 55주년을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자
- 0 경제정책중시: 김정일의 혁명적 경제정책과 당의 경제정책 관철 강조
- 0 연합기업소 폐지, 관리국 신설
- 0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을 경제지도의 주요관심으로 부각
- 0 조선노동당 중앙위 구호: 당의 혁명적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중시정책 철저히 관철, 경제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 가져오자(8월)

Ⅲ. 대외 관계 패러다임의 전환

1. 배경

- 0 안보환경의 개선
 -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
 - 페리보고서와 북-미관계(북한의 승리와 대화-협상 노선) 그리고 북-일 관계 개선 시도
- 0 식량난 및 경제난 완화와 대남-서방 의존성 증대
 - 남북 교역의 증대
 - 서방의 언론적 지원

0 극도로 위축된 3대혁명의 돌파구

2. 전개

- 0 「통미봉남(通美封南)」 정책의 포기과 대남협상 노선의 채택 및 전개
- 0 대 서방외교 강화

IV.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

1. 김정일체제 유지 및 김정일 권위 강화 위해 '정상회담' 굳히기에 주력

- 가. 북한은 정상회담이 김정일 위원장의 탁월한 능력과 광폭정치 덕분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음.
- 나.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의 통일관에 감동하여 백기들고 평양에 찾아왔다는 식으로 학습 시키고 있음(조선로동당 출판사 「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제기된 반영」 2000년 6월)
- 다. 남한에는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 결사옹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장군님 따라 배우기가 유행한다는 식으로 선전
- 라.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주의 조선이 추구하는 '주체의 강성대국 건설'이 더욱 힘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.

2. 북한 주도에 의한 「남한과의 교류」

- 가.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한 주민에 미치는 과급 효과를 고려 북한 주민의 대남적개심 약화 방지를 위해 남한정부 및 민간과의 교류는 하되 '주도권은 우리가 쥔다'는 대남 정책의 기본 방침을 세웠음
- 나.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다. 「남한 길들이기」와 반복한 정서약화 시도

3. 통제사회의 유지

- 가. 정상회담 이후 체제유지의 관건인 폐쇄체제가 일정부분 흔들릴 수 있으나,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계는 아님.
 - 통신수단 통제, 여론 형성 제어 등 체제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.

V.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?

1. 「북한」에 대한 정확한 이해

북한 정권의 의도와 북한 현실에 대한 바른 분석 필요

2. 현실에 근거한 대북정책의 추진

- 가. 정부의 대북정책이 갖고 있는 유용성과 적실성 검토
- 나. 탄력적인 대북전략의 추진
 -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북한을 상대하는 협상전략과 대북 행동프로그램의 모색.

다.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에 대한 설득 필요

3. 대북정책의 지지를 위한 외교정책의 전개

* 참고문헌

- 0 김영수, "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중간 평가", 중앙대학교 민족연구원 주최 세미나(2000년 11월 16), 발표논문.
- 0 이종석, "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 정책변화", 「사상」, 2000년 가을호
- 0 박형중, "정상회담 전후 북한체제의 변화", 북한연구학회 주최 동계세미나 (2000년 12월 1일), 발표논문.
- 0 조선로동당 출판사, "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제기된 반영", 「월간조선」, 2000년 9월호